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송호빈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강진군, 새콤달콤 체리 본격 수확

강진군에서는 인기과수인 체리가 수확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체리는 수년전부터 귀농인들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강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체리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11농가 4.8ha의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다. 군은 체리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연구회를 결성하여 조직화하고 난립해 있는 체리 품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체리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가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체리는 최근 소비증가에 따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배가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 등 높은 재

연구회 중심 교육·품종평가 등
고품질 생산 농가 육성에 노력



배기술을 요구하는 작물이다. 국내산 체리가 생산되지 않는 겨울철에도

철레나 미국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어 지속적인 과실로 자리 잡고 있지만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주산지에서는 소득 작물로 인기가 높다. 올해부터 체리를 수확하고 있는 작전면 정현진씨(61)는 "당도가 높고 과실이 비교적 큰 품종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작거래로 판매하고 있는데 군에서 주최하는 교육과 정보전달이 큰 힘이 됐다"면서 군의 관심과 지원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승욱 군수는 "강진은 일조량이 많고 기후가 따뜻해 체리의 맛이 좋다. 아열대과수 등 유망과수를 집중 육성한다는 군정방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체리 농가를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담양군,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근절 캠페인 전개해



담양군 담양읍은 지난 11일 담양읍 버스터미널과 중앙로를 중심으로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내 차량을 신고하는 것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자에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총 4개 구간이다. 스마트폰 신고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과태료는 각각 4만원씩 부과되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에 대해서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이성우 담양읍장은 "4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시행으로 고질적인 안전문제 관할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수시, '브랜드 슬로건 공모 수상작' 8건 선정

네이밍 전문가·자문단 심사 진행...최우수작 '섬섬 여수'

여수시는 지난 1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 표 개발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브랜드 슬로건 공모 수상작 8건을 선정했다. 수상작 중 최우수상은 '섬섬여수'로 섬섬옥수와 여수를 결합한 합성어다. 365개의 섬을 함축해 표현했고 곱디라는 뜻도 담겨있다. 우수상은 '남민권포 여수', '여기!, 여수!'가 각각 차지했고, 장려

상에는 'Sea you 여수', '365Sum', '수려해(수려해) 여수', '불빛누리 여수', '해맑은 휴양도시 여수'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월 17일부터 한 달 여간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2342명이 참여해 슬로건 2561건을 제출했다. 네이밍 전문가가 참여한 용역진은 1차로 슬로건 50건을 선별했다.

이후 언론인, 디자이너, 브랜드 컨설턴트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 100만 원, 장려상 5명에게 각 2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모 수상작 8건과 용역사 개발안 13건 중 여수시 표로 활용할 네이밍 9건을 별도로 선정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앞으로 여수시는 네이밍 전문가 검토와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여수시 표 1건을 최종 확정하고 디자인을 개발할 방침이다. 고재영 부시장은 "시민 의견이 반영되고 여수의 매력과 가치를,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브랜드 슬로건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여수시 표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민간병원 인공지능실 진료개시

만성신부전증 환자 경제·시간 부담 덜어

진도군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이 관내의료기관에서 투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도전남병원에서 지난 11일부터 진료·투석을 실시했다. 군은 인근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투석을 받고 다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진도군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병원 인공지능실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투석 환자들을 위해 관내 민간병원에 인공지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도군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총 66명으로 대부분 해남, 목포, 광주 등 타 지역 병원으로 주 3회 통원

치료 중에 있으며, 교통·의료비 등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원거리의 병원 치료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인공지능실 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병원인 진도읍에 위치한 남우의료재단의 진도전남병원으로 63평 규모의 인공지능실과 15대의 최신장비를 설치하고 신장내과전문의 1명과 경력 전문간호사 2명을 채용해 진료·투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장애인협회와 연계해 콜택시 차량을 이용한 통원 치료와 4시간 동안 진행되는 투석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TV장착 등 편안한 휴게 공간과 같이 최신 투석장비를 설치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영암군 "적극적 예찰과 방제로 벼 먹노린재 피해 예방해야"

영암군은 친환경 및 조기재배 단지에서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인 먹노린재의 월동 후 생존율이 72% 이상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예찰과 초기 방제를 당부했다. 먹노린재는 성충으로 나뉘어 잡초 밑에서 겨울을 지내다 모내기 후 6월 상·중순경 논으로 이동하여 벼의 줄기 및 이삭을 흡즙하여 생육억제, 반점미 유발 등 수량 감소와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주고 9월 중·하순경 월동장소로 이동한다. 먹노린재 성충은 날개는 있지만 이동성이 크지 않아 기존에 피해가

없던 포장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확률은 낮으나 전년도에 발생했던 지역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방제 적기는 산란하기 전인 6월 하순경이며, 논두렁과 가장자리 위주의 정밀방제가 필요하다. 이때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충의 밀도가 높아지고, 줄기가 부서져서 이후 방제에서는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정찬병 소장은 "먹노린재는 논두렁과 가장자리를 집중적으로 예찰해야 하며, 전년도에 피해가 발생했던 농가는 6월 중·하순 적기방제가 필요하다"며 예찰 및 적기 방제를 당부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완도군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를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난 4월 19일 '완도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여 난임 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4세 이하인 법적 혼인 상태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가 해당되고, 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현재까지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신선배아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부부에게 난임 시술 당 각 1회씩(총 3회) / 최대 150만 원(1회당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범위와 지원액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표준서비스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상자가 시술 전에 보건 의료원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신청서 제출 및 사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시술 종료 후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통장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시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햇빛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